

기업의 ESG 책임은 어떻게 정치적으로 구성되는가?:

노스볼트 파산을 둘러싼 스웨덴 의회 담론 분석*

이 성 준** · 이 재 진***

본 연구는 스웨덴 배터리 기업 노스볼트(Northvolt)를 둘러싼 스웨덴 의회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ESG 및 녹색 산업전환 담론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구성되고 변화하는지를 탐색한다. 본 연구는 스웨덴 의회 문서를 중심으로 노스볼트 관련 말뭉치를 수집하고,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CDA)을 활용하여 핵심 표상, 행위자 구성, 정당화 전략, 위험 및 비용 구성, 정치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기 담론에서 노스볼트는 녹색 산업전환과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프로젝트로 구성되었으며, 환경보호와 산업성장이 조화 가능한 목표로 의미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후기 담론으로 갈수록 전력 공급, 주택 부족, 공공재정 부담, 투자 위험 등의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기존 담론 내부의 긴장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노스볼트 파산 이후에는 정부 개입과 산업정책 실패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며 ESG 및 녹색 산업전환 담론 자체가 정치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균열에도 불구하고 녹색 산업전환 자체의 정당성은 완전히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한국경영교육인증원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산업경영학과

붕괴되지 않았으며, 본 연구는 이를 스웨덴형 ESG 담론이 보여주는 ‘조건부 안정성(contingent stability)’의 특징으로 해석한다.

주제어: ESG, 노스볼트(Northvolt), 녹색 산업전환, 생태적 근대화, 비판적 담론분석(CDA), 정치화, 조건부 안정성

1. 서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늘날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포괄하는 ESG 개념을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 활동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ESG는 단순한 규범적 기대를 넘어 기업 전략,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 산업정책의 방향을 규정하는 중요한 프레임으로 기능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스웨덴은 ESG 관련 제도 발전과 사회적 수용성 측면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하는 대표적 국가로 자주 언급된다. 스웨덴이 ESG 선도국가로 평가받는 이유는 사회민주주의 전통, 조기 정착된 환경·지배구조 규제, 그리고 정부·기업·시민 간 높은 사회적 신뢰 등을 중심으로 설명되어 왔다(Hall & Soskice, 2001). 예컨대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EU 차원의 비재무정보공시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 도입 이전부터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와 투명성을 유지해 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3).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ESG가 스웨덴 사회에서 실제로 어떠한 논리와 담론을 통해 정당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ESG는 단일하고 자명한 가치로 존재하기보다는, 경제성장·산업경쟁력·국가전략·에너지 안보 등 다양한 논리와 결합하며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스웨덴 사회는 ESG에 진심이다”라는 평가는 그 내부의 긴장과 담론적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ESG 및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연구는 주로

경영학적 관점에서 ESG 성과 측정, 또는 국가 간 제도 비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여왔다. 반면 ESG가 어떠한 의미와 논리를 통해 정당화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담론적 경쟁과 권력 관계가 형성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반면, 비판적 연구(critical research)의 전통 속에서는 경제성장 담론과 환경 담론 사이의 긴장과 모순을 분석하려는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예. Buttel, 2000; York & Rosa, 2003).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뉴스 미디어나 기업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실제 정치적 의사결정 공간에서 ESG 담론이 어떻게 동원되고 재구성되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웨덴 배터리 기업 노스볼트(Northvolt)의 파산은 ESG 담론의 구성과 재구성을 분석하기 위한 중요한 사례를 제공한다. 노스볼트는 친환경 산업 전환과 유럽 배터리 산업 자립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으며, ‘바람직한’ ESG 실천 사례로 널리 알려져 왔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위기와 파산은 ESG 담론이 어떠한 방식으로 유지·조정·재구성되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특히 ESG 내재화 수준이 높은 스웨덴 사회에서도 실제 관련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다양한 긴장과 균열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스웨덴 의회 문서를 중심으로 노스볼트 파산을 둘러싼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ESG 책임이 실제 스웨덴 정치 공간에서 어떠한 논리와 의미를 통해 정당화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ESG 담론을 단순한 가치 담론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산업경쟁력·국가전략·지역경제 등의 논리를 조정하며 특정한 산업적 미래를 정당화하는 담론적 장치로 이해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관심은 단순히 기업 차원에서 기업 성과와 ESG 간 갈등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 이러한 갈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되고 비가시화되며 특정 전환 경로가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선택으로 구성되는가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의 ESG 책임을 기업 내부의 책임 문제로 이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업의 ESG 책임은 국가의 산업전략, 녹색전환, 공공투자, 그리고 산업정책에 관한 정치적 담론 속에서 구성되

는 사회적 의미로 이해한다.¹⁾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첫째, 기업의 ESG 책임을 둘러싼 주요 담론 유형을 규명한다. 둘째, 스웨덴 사회 내에서 이러한 담론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경쟁하며 특정 담론이 우세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우세 담론이 ESG 책임을 어떠한 정치적·경제적 맥락 속에서 정당화하는지를 밝힘으로써, 기업의 책임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ESG 책임을 단순한 규범이나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미구성과 담론적 경쟁의 산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2.1 ESG 담론의 다중 정당화 구조: 윤리, 경제, 그리고 정치·전략 논리

담론적 차원에서 ESG는 상이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가운데 서로 다른 행위자와 맥락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정당화되는 복합적 담론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ESG 담론의 정당화 논리를 크게 세 가지 범주, 즉 1) 윤리적 논리, 2) 경제적 논리, 3) 정치·전략적 논리로 구분하고자 한다.

먼저, 윤리적 논리는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1) 이어지는 글에서는 ‘ESG 전환’, ‘녹색전환(green transition)’, ‘녹색 산업전환(green industrial transition)’, ‘지속가능한 전환(sustainability transition)’ 등의 용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이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개념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전환은 사회·경제 시스템 전환의 장기적 전환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며, 녹색전환은 기후변화 대응과 탈탄소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전환을 의미한다. 녹색 산업 전환은 이러한 녹색전환이 산업정책과 제조업 혁신의 차원에서 구현되는 과정을 지칭하며, ESG는 이러한 전환을 정당화하고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규범적·담론적 틀을 의미한다. 다만 스웨덴 의회 담론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이 엄격히 구분되어 사용되기보다 상호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본 연구 역시 담론의 실제 사용 맥락을 최대한 유지하여 용어를 사용하였다.

는 규범적 요구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Carroll(1991)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법적·윤리적·자선적 책임으로 구성된 위계적 구조로 설명하며, 기업이 단순히 이윤 창출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책임 역시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이후 ESG 논의에서 환경보호, 인권, 공정성 등을 기업 활동의 핵심 가치로 이해하는 윤리적 담론의 기반으로 작용해 왔다.

반면 경제적 논리는 ESG를 기업의 성과와 경쟁력의 관점에서 정당화한다. Kramer & Porter(2011)는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개념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과 경제적 가치 창출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전략적 기회로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이후 ESG가 기업 가치, 투자 매력도, 위험 관리와 연결될 수 있다는 논의로 확장되었으며, ESG를 경제적 합리성의 언어로 정당화하는 중요한 이론적 기반으로 자리잡았다.

마지막으로 정치·전략적 논리는 ESG를 국가 정책과 산업 전략의 맥락에서 이해한다. Mazzucato(2013, 2018)는 국가가 혁신과 산업 전환을 주도하는 핵심 행위자임을 강조하며, 지속가능성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션 지향적(mission-oriented)’ 접근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ESG는 단순한 윤리적 요구를 넘어 산업 구조 재편과 기술 경쟁을 정당화하는 전략적 담론으로 기능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의 Green Deal 정책은 환경보호를 산업 경쟁력, 기술 주도권, 에너지 안보와 결합된 전략적 의제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ESG 담론의 정치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또한 Scherer & Palazzo(2011)는 글로벌 거버넌스 환경에서 기업이 점차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정책 및 제도 형성과 긴밀히 결합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처럼 ESG 담론은 윤리적 책임, 경제적 합리성, 정치·전략적 필요라는 서로 다른 정당화 논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논리들이 항상 조화롭게 결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ESG는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긍정적 가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가, 누구의 비용으로 전환을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다양한 긴장을 내포한다.

이러한 긴장은 지속가능성 관련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Dyllick & Muff(2016)는 기업들이 지속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환경·사회 문제는 충분히 개선되지 않는 현상을 ‘Big Disconnect’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이들은 기업 지속가능성 논의가 실제로는 비용 절감, 위험 관리, 평판 개선, 경쟁력 강화와 같은 기업 중심 논리에 의해 구성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즉, 지속가능성은 수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방식은 여전히 기업 성과와 경제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조직될 수 있다는 것이다(Lee et al., 2023).

이 지점에서 ESG 담론의 핵심 긴장이 드러난다. 다시 말해, ESG의 제도화는 윤리적 논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ESG가 기업 가치, 리스크 관리, 투자 매력도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경제적 논리를 통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Sipinen et al., 2025). 그러나 바로 이 점 때문에 ESG는 본래의 규범적 목적과 일정한 긴장을 갖게 된다.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이 ‘옳기 때문에’ 수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성과 경쟁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택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해지는 것이다.

2.2 스웨덴 사회의 ESG 담론: 생태적 근대화를 통한 통합

스웨덴은 오랫동안 ESG 경영과 산업 경쟁력, 그리고 국가 전략이 상충 관계에 있는 목표라기보다 상호 보완 가능한 목표라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난 국가로 평가되어 왔다(Hajer, 1995; Mol & Sonnenfeld, 2000; Dryzek, 2013). 이러한 특징은 생태적 근대화(ecological modernization) 논의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생태적 근대화 관점에 따르면 환경문제는 산업성장과 대립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해결 가능한 대상으로 이해된다(Meadowcroft, 2005). 즉 친환경 기술과 녹색 산업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의미화되며, 국가는 단순한 규제자가 아니라 산업전환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전략적 행위자로 위치하게 된다.

스웨덴에서 생태적 근대화 담론이 특히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배

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복지국가 전통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 개념은 환경보호를 규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장기적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 목표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Koch & Fritz, 2014). 둘째, 환경정책이 에너지·산업·교통·도시 정책 등 다양한 영역과 통합되는 방식, 즉 소위 ‘환경정책 통합(environmental policy integration, EPI)’ 원칙을 통해 제도화됨으로써 환경보호가 국가 경쟁력과 산업전환 전략 속에 내재된 목표로 자리잡게 되었다(Baker & Eckerberg, 2008). 셋째,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 대중 역시 환경정책을 단순한 규제라기보다 지속가능성과 미래 산업전환을 위한 상당한 정책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Harring, Jagers & Matti, 2017). 넷째, 합의지향적 정치문화 속에서 환경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공개적 정치 대립보다는 주로 제도적 조정의 방식으로 관리되었다(Jahn, 2016). 마지막으로, 스웨덴은 국제적으로 환경 및 지속가능성 분야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이러한 경험은 환경정책을 국가 정체성과 국제적 위상을 구성하는 요소로 만들었다(Lidskog & Elander, 2012).

종합하면, 스웨덴에서는 생태적 근대화 담론이 단순한 정책 프레임 넘어 환경보호, 경제성장, 국가 전략을 하나의 일관된 서사 속에서 결합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Baker & Eckerberg, 2008; Anshelm & Hultman, 2014). 이러한 특징은 스웨덴 사회의 ESG 담론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다시 말해, ESG에 대한 규범적 요구는 혁신과 경쟁력의 언어로 번역되고, 국가 전략 역시 이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면서, ESG는 상이한 논리가 충돌하기보다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구성된다는 것이다.

2.3 통합의 이면: 스웨덴 사회의 ESG 담론 내 긴장과 균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웨덴 사회의 ESG 담론은 표면적으로는 조화로운 통합 구조를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내재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긴장을 경제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경제적 차원의 긴장은 ESG가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비용 부담과 성과 불확실성, 투자 우선순위 재편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반면 정치적 차원의 긴장은 ESG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떠한 전환이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는가를 둘러싼 해석의 충돌에서 발생한다. ESG는 공공선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편적 기준으로 제시되지만, 동시에 특정 산업과 정책 방향을 정당화하는 담론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갈등은 단순한 정책 효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미래가 바람직한가”와 “누가 그 전환을 주도하는가”를 둘러싼 정치적 문제로 확장된다.

이러한 긴장은 특히 에너지 체계와 산업 전환이 결합되는 지점에서 두드러진다. 스웨덴에서 배터리 생산, 데이터센터, 수소 기반 철강과 같은 녹색 산업의 확장은 대규모 전력 수요를 수반하며, 이는 전력 가격 상승과 송전 인프라 병목, 지역 간 공급 불균형과 결합되어 새로운 분배 갈등을 야기한다. 예컨대 북부 지역은 풍부한 수력 자원을 기반으로 산업 투자가 집중되는 반면, 남부 지역에서는 전력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가계와 중소기업이 이전보다 더 큰 부담을 감당하게 된다. 이처럼 동일한 전환 과정이 지역과 집단에 따라 상이한 비용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ESG는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자원 배분을 둘러싼 경제적 갈등의 문제로 전환된다(Sonnsjö, 2024).

유사한 긴장은 자원 개발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배터리와 철강 산업의 확장은 철광석과 희토류 수요 증가를 수반하며, 이는 광산 개발 확대와 직결된다(Vidal, 2024).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개발이 국가 산업 전략과 결합되는 동시에, 사미(Sámi) 공동체의 전통적 생계와 토지 이용과 충돌하면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Svensson & Schmidt, 2023). 여기서 역설적인 점은, 광산 개발이 기후 대응과 산업 경쟁력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정당화되는 반면, 사미 공동체의 문화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주변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ESG가 제시하는 지속가능성이 실제로는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으며, 새로운 형태의 불균형과 추출주의(extractivism)를 재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긴장은 정치적 차원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웨덴의 녹색 철강 프로젝트인 HYBRIT(Hydrogen Breakthrough Ironmaking Technology)이다. HYBRIT은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를 상징하는 대표 사례로 제시되어 왔으며, 스웨덴의 녹색 산업 전략을 대표하는 프로젝트로 강한 정치적 지지를 받아왔다(Anshelm & Hultman, 2014). HYBRIT을 둘러싼 논쟁에서는 특정 기술이나 산업의 가능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과장된 기대(hype)’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De Leeuw & Vogl, 2024). 녹색 철강은 기후 대응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해법으로 제시되며 강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해 왔지만, 이 과정에서 기술적 불확실성과 비용 구조 문제는 뒤로 밀려나는 경향이 나타난다. 더 나아가 생산 축소나 소비 감소와 같은 대안적 접근은 비현실적 선택으로 간주되며 공론장에서 주변화된다. 이러한 점에서 ESG 담론은 다양한 전환 경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기준이라기보다, 특정 경로를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으로 구성하는 정치적 장치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Hajer, 1995; Swyngedouw, 2010).

경우에 따라 이러한 긴장은 일부 국가에서 이른바 반ESG 정치(anti-ESG politics) 또는 ESG 백래시(ESG backlash) 등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전략을 넘어 정치적·이념적 갈등의 대상이 되었으며, 기후정책, 투자 규제, 기업 책임을 둘러싼 당파적 논쟁과 결합되는 경향을 보인다(Mayer, 2022). 그러나 이러한 정치화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ESG가 제도적으로 깊이 내재화되어 있고 녹색 산업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에서는, ESG 자체에 대한 전면적 부정보다는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방식, 비용 부담, 국가 개입의 범위, 산업정책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정치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스웨덴 사례는 미국식 반ESG 정치와 동일한 현상이라기보다, ESG가 높은 제도적 정당성을 가진 맥락에서도 어떻게 균열과 정치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4 ESG 담론의 안정화와 정치화 과정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스웨덴의 ESG 담론은 단순히 환경보호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를 넘어, 산업 전략, 국가 경쟁력, 책임 투자, 지속가능한 전환(sustainability transition) 등을 하나의 통합된 서사 속에서 결합하는 정치·경제적 정당화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고정되거나 완전히 안정된 구조라기보다, 특정한 조건 속에서 유지되는 조건부적 안정성(contingent stability)에 기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후 소개될 분석 결과에 기초해 노스볼트를 둘러싼 스웨덴 의회 담론이 어떠한 조건 속에서 안정화되고, 이후 어떠한 계기를 통해 균열과 정치화로 전환되는가를 1) 안정화(stabilization), 2) 조건부 안정성(contingent stability), 3) 균열(crisis/rupture), 4) 정치화(politicization)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은 환경담론이 일정한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한 이후 사회적 사건과 위기를 계기로 기존 담론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새로운 의미 경쟁이 전개된다는 Hajer(1995)의 논의와도 맥을 같이 한다.

<표 1> ESG 담론의 안정화 및 정치화 과정

	핵심 특징	기업의 위치	갈등 처리 방식
안정화	ESG와 녹색 전환이 경제 성장 및 경쟁력과 양립 가능한 미래로 제시됨	국가 경쟁력과 산업 전환을 수행하는 핵심 행위자	갈등은 상대적으로 비가시화되며 조화 가능한 것으로 제시
조건부 안정성	ESG 담론은 유지되지만 전환 비용과 위험이 점차 가시화됨	녹색 전환의 핵심 주체이면서 동시에 공적 지원의 대상	비용 부담과 분배 문제가 제한적으로 등장
균열	위기 발생을 계기로 기존 정당화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함	혁신의 상징에서 잠재적 위험 및 실패의 대상으로 재구성	기존에 비가시화되던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남
정치화	ESG와 녹색 전환 자체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 경쟁 심화	국가 전략 수행자, 공적 부담의 원인, 시장 실패 사례 등으로 다양하게 재구성	갈등이 정치적 책임과 이념적 대립의 형태로 전환

먼저 1) ‘안정화’ 단계에서는 환경보호, 산업 경쟁력, 국가 전략, 책임 투자 등의 논리가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되며 ESG 담론이 비교적 안정적인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 과정에서 녹색 산업전환은 경제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미래 전략으로 제시되며, 노스볼트와 같은 기업 역시 국가 경쟁력과 산업 전환을 수행하는 핵심 행위자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성은 갈등이 제거된 상태라기보다 다양한 긴장이 일정 수준 관리되는 2) ‘조건부적 안정성’에 가깝다. 실제 산업 전환 과정에서는 전력 인프라 문제, 공적 투자 부담, 산업 전환의 불확실성 등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비용과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가 점차 부각된다.

이후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기존 담론 내부의 긴장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3) ‘균열’ 단계로 진입한다. 초기에는 녹색 성장과 혁신 중심으로 정당화되던 담론이 점차 산업정책 실패, 공공재정 부담, 정부 개입의 정당성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4) ‘정치화’ 단계에서는 ESG 담론이 더 이상 단일한 사회적 합의의 대상으로 기능하기보다, 서로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와 책임 담론이 경쟁하는 정치적 장으로 전환된다. 본 연구는 노스볼트 사례를 단순한 산업 프로젝트의 성공 또는 실패 사례가 아니라, 스웨덴 사회에서 ESG 및 녹색 산업전환 담론이 어떠한 방식으로 안정화되고, 또 어떠한 조건 속에서 균열과 정치화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사례로 이해한다.

3.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ESG 담론의 형성·조정·재구성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스웨덴 의회(Riksdagen)의 노스볼트 관련 문서를 주요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스웨덴 의회 공식 데이터베이스인 ‘Riksdagen Dokument & Lagar’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Northvolt’를 핵심 검색어로 설정하고 관련 의회 문서를 수집한 결과, 총 498건의 문서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초기 검색 결과에는 단순 일정 공지, 회의 안내, 반복 게시 자료 등 실질적인 정치 담론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 역시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이러한 자료를 제외하고, 서면질의 및 질의응답(interpellation), 의안 발의문(motion), 본회의 회의록(protokoll),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betänkande / proposition), 청문회 및 협의 기록(sammanträde i utskott / offentlig utfrågning) 등을 중심으로 분석 대상을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총 318건의 문서가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18건의 문서가 모두 동일한 수준의 분석 적합성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 상당수 문서에서는 노스볼트가 단순 사례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언급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순히 ‘Northvolt’라는 키워드의 포함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해당 문서 내부에서 노스볼트가 실질적인 논의 대상으로 기능하는지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질적 스크리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1) 노스볼트가 정책 논쟁의 핵심 대상으로 등장하는 경우, 2) 관련 논의가 ESG 및 녹색 산업 전환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 3) 정부·기업·투자자·지역사회 등의 역할과 책임이 논의되는 경우, 4) 실제 주장·비판·정당화 논리가 나타나는 경우 등을 중심으로 핵심 말뭉치(corpus)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43건의 문서가 본 연구의 핵심 분석 말뭉치로 선정되었다(청문회 동영상 5건 포함). 수집된 전체 문서 목록은 부록 1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2> 본 연구의 CDA 분석 틀

구분	핵심 질문	Fairclough CDA와의 연결	텍스트	담론적 실천	사회적 실천
핵심 표상	노스볼트와 ESG 전환은 무엇으로 묘사되는가?	담론이 현실을 특정 방식으로 구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 분석	표상, 의미 구성, 어휘 선택, 은유	담론 구성	헤게모니적 의미 형성
행위자 구성	누가 책임·권한· 정당성을 가진	행위자에게 특정 역할·정체성·행위 성을 부여하는 방식	사회적 행위자 표상, 행위성,	담론적 역할 배치	권력관계 재생산

구분	핵심 질문	Fairclough CDA와의 연결	텍스트	담론적 실천	사회적 실천
	주체로 구성되는가?	분석	주체 위치화		
정당화 전략	ESG 전환은 어떠한 가치·논리·미래 비전으로 정당화되는가?	특정 정책·질서·산업전환을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것으로 만드는 담론 분석	당위 표현, 평가, 미래 지향 표현, 수사 전략	정당화 담론, 담론 간 혼합, 미래 프레이밍	정당·자연화, 이데올로기, 헤게모니 담론
위험 및 비용 구성	위험·비용·불확실성은 어떻게 인식·강조·배분 되는가?	특정 위험은 전경화하고 다른 위험은 축소하거나 배경화하는 과정 분석	전경·배경화, 완곡 표현, 평가적 표현	위험 담론, 책임 프레이밍	위험의 사회적 분배, 위기의 정치화
배제 및 정치화	어떤 관점·비판·대안은 주변화되며, 어떤 갈등이 정치화되는가?	특정 담론을 중심화하고 다른 담론을 배제·주변화 하는 권력 작동 분석	침묵화, 삭제, 제한된 어휘 선택	담론적 배제, 대항 담론, 담론 경쟁	배제·주변화, 헤게모니 균열, 정치화

본 연구는 Fairclough(2003)의 3차원 CDA 모형에 따라 텍스트(text), 담론적 실천(discursive practice),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의 층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텍스트 차원에서는 특정 어휘 선택, 평가적 표현, 당위(modality), 은유(metaphor), 전경화 및 배경화(foregrounding/backgrounding) 등의 언어적 요소를 중심으로 노스볼트와 ESG 전환이 어떠한 방식으로 묘사되고 구성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담론적 실천 차원에서는 서로 다른 장르와 제도적 맥락 속에서 어떠한 담론이 결합·재생산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 담론, 산업정책 담론, 국가경쟁력 담론, 책임투자 담론 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 연결(interdiscursivity)되며 ESG 전환의 의미를 구성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실천 차원에서는 이러한 담론이 단순한 언어적 수준을 넘어 어떠한 사회적 현실과 권력 관계를 정당화하거나 자연화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ESG 전환이 어떠한 미래를 ‘불가피한 것’ 혹은 ‘정상적인 것’으로 구성하는지, 어떠한 위험과 비용은 강조되거나 반대로 주변화되는지, 그리고 특정한 국가-시장 관계 및 책임 구조가 어떠한 방식으로 정당화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체 분석을 1) 핵심 표상, 2) 행위자 구성, 3) 정당화 전략, 4) 위험 및 비용 구성, 5) 배제 및 정치화 등 총 다섯 가지 분석 차원을 중심으로 구조화하였다. 각 차원은 안정화, 조건부 안정성, 균열, 정치화의 네 시기 구분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ESG 담론의 의미 구조와 정당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4. 분석

4.1 노스볼트(Northvolt) 기업 소개

노스볼트는 2016년 스웨덴에서 설립된 배터리 제조 기업이다. 회사는 전 테슬라(Tesla) 출신인 피터 칼손(Peter Carlsson)과 파올로 세루티(Paolo Cerruti)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하였다. 설립 초기 노스볼트는 유럽 내 배터리 공급망 자립과 전략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속에서 유럽연합(EU),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 스웨덴 공공 금융기관, 민간 투자자 및 유럽 자동차 기업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였다. 이후 폭스바겐(Volkswagen),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BMW 등의 투자 역시 이루어지면서 유럽 배터리 산업의 대표적 성장 사례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2017년 노스볼트는 스웨덴 북부 셀레프테오(Skellefteå)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인 ‘노스볼트 에트(Northvolt Ett)’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스웨덴 및 유럽 내 배터리 생산 확대 계획과 함께 관련 투자 및 공장 건설이 진행되

었다. 2019년 이후 여러 유럽 자동차 기업들과 배터리 공급 계약 및 투자 협력이 이루어졌으며, 독일 잘츠기터(Salzgitter) 등 유럽 내 추가 생산시설 계획도 추진되었다. 또한 배터리 재활용 및 원자재 공급망 구축 사업도 함께 진행되었다. 2021년 스웨덴 연기금(AP-fonder)은 노스볼트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였다. 이후 공공 및 민간 투자 확대와 함께 노스볼트의 생산시설 확장과 신규 프로젝트 추진이 이어졌다. 2021년 이후 노스볼트는 생산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스웨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과 관련 투자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생산 확대 과정에서 생산 차질, 수익성 악화, 공급망 문제, 투자 비용 증가, 자금 조달 부담 등이 발생하였으며,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와 글로벌 배터리 시장 경쟁 심화도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24년 노스볼트는 구조조정 및 대규모 해고를 발표하였다. 같은 시기 공공지원, 국가 보증, 연기금 투자 등과 관련된 논의도 이루어졌다. 2024년 11월에 노스볼트는 미국에서 챕터 11 파산보호 절차를 신청했으며, 이후 2025년 스웨덴에서도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회사의 부채 규모는 약 800억 스웨덴 크로나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현대 스웨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업 파산 사례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었다. 이후 연기금 투자 손실, 정부 개입, 산업정책 및 책임 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이어졌다.

4.2 분석 대상 말뭉치의 시기별 담론 변화

수집된 말뭉치의 시기별 담론 주제를 정리하면 <표 3>와 같다. 전체 43개 말뭉치의 문서 형태 및 간략한 요약 정보는 부록 1에 첨부되었다.

<표 3> 핵심 분석 말뭉치의 시기별 주요 특징

시기	문서 수	주요 담론 주제	핵심 키워드(원문 기반)
2018~20 안정화	9	녹색 산업전환과 지속가능 성장	지속가능성(hållbarhet), 혁신(innovation), 경쟁력(konkurrenskraft), 기후전환(klimatomställning), 녹색 산업(grön industri)

시기	문서 수	주요 담론 주제	핵심 키워드(원문 기반)
2021~22 조건부 안정성	8	산업 확장과 인프라 부담의 가시화	전력 공급(elförsörjning), 전력망(elnät), 광물(mineral), 전기화(elektrofiering), 주거 문제(bostadsfrågan)
2023~24 균열	9	위험과 비용의 가시화	국가 보증(statliga garantier), 공공지원(subventioner), 투자(investeringar), 위험(risk), 해고(avsärl)
2025~26 정치화	17	책임 추궁과 ESG 담론의 정치화	스웨덴 연기금(AP-fonder), 손실(förluster), 책임(ansvar), 위험 분담(riskdelning), 파산(konkurs), 감사(granskning)

전체 말뭉치를 검토한 결과, 노스볼트를 둘러싼 담론은 시기에 따라 비교적 뚜렷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담론에서는 노스볼트가 지속가능한 산업혁신과 녹색 산업전환의 상징적 사례로 주로 제시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전력 공급, 광물 확보, 지역 인프라, 공공지원, 투자 위험, 연기금 손실 등 보다 복합적인 문제들이 점차 담론의 중심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2025년 이후에는 노스볼트 파산과 관련된 책임 문제 및 정부 개입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ESG 및 녹색 산업전환 담론 자체가 정치적 갈등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4 단계 과정은 실제 담론 변화 과정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화 시기(2018~2020)에는 녹색 산업전환과 국가경쟁력이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되었으며, 조건부 안정성 시기(2021~2022)에는 전력·광물·인프라 문제 등 구조적 긴장이 부분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후 균열 시기(2023~2024)에는 공공재정 부담과 투자 위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마지막으로 정치화 시기(2025~2026)에는 노스볼트 파산 이후 정부 책임과 산업정책 실패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확대되면서 ESG 및 녹색 산업전환 담론 자체가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4.3 핵심 표상: 노스볼트는 어떠한 존재로 구성되는가?

노스볼트를 둘러싼 스웨덴 의회 담론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노스볼트가 단순한 민간 배터리 기업이라기보다 스웨덴의 녹색 산업 전환과 유럽 전략산업 재편을 수행하는 상징적 프로젝트로 반복적으로 표상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노스볼트는 스웨덴 산업의 미래와 국가적 자부심을 상징하는 대상으로 제시된다. 아래 인용문은 이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문에 소개하고자 한다.

Anders Ygeman(사회민주당, 국회의원): 우리는 스웨덴의 훌륭한 기업들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출처: 2023/24:98 회의록(21번 문서)

Ann-Charlotte Hammar Johnsson(온건당, 국회의원): 나는 이것이 기후를 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성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지를 가져올 위대한 발전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출처: 2019/20:63 회의록(9번 문서)

특히 21번 문서에서 노스볼트는 스카니아(Scania), 볼보(Volvo), ABB, 아트라스콤포(Atlas Copco) 등과 같은 스웨덴 대표 기업과 함께 언급되는데, 이는 노스볼트가 단순한 스타트업이나 개별 기업이라기보다 스웨덴 산업국가의 미래를 대표하는 기업군 속에 위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우리의 (våra)”라는 표현은 노스볼트를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니라 국가적 성취와 집합적 자부심의 대상으로 구성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초기 문서들에서는 노스볼트가 재생에너지, 광물 산업, 배터리 생산을 연결하는 미래 산업의 핵심 사례로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Rikard Nordin(중앙당, 국회의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공급과 국내 광물 산업과의 근접성이 노스볼트가 셀레프테오를 선택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출처: 2017/18:76 회의록(1번 문서)

여기서 노스볼트는 단순 제조기업이라기보다, 재생에너지·광물·첨단 배터리 산업을 연결하는 국가 산업전환의 매개체로 표상된다. 특히 “재생에너지(förnybar energi)”와 “국내 광물 산업(inhemsk gruv- och mineralverksamhet)”이 하나의 문장 안에서 결합되는 방식은, 녹색 전환과 산업 경쟁력이 상호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동시에 추구 가능한 목표로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초기 담론에서는 노스볼트에 대한 직접적인 긍정 평가 표현도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Jennie Nilsson(사회민주당, 국회의원): 제가 떠올리는 또 하나의 좋은 사례는 셀레프테오에서의 노스볼트 대규모 설립입니다. 이곳에서는 2,500명 이상이 일하게 될 유럽 최대의 배터리 공장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환상적입니다. 출처: 2019/20:63 회의록(4번 문서)

이어 같은 문서에서는 환경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Jennie Nilsson(사회민주당, 국회의원): 또 하나 환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환경 심사가 매우 훌륭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출처: 2019/20:63 회의록(4번 문서)

이러한 표현은 노스볼트를 단순히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묘사하는 수준을 넘어, 녹색 산업전환 자체에 대한 낙관과 기대를 상징하는 프로젝트로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노스볼트는 북부 지역 산업 재편과 국가 경제 재구성의 상징으로도 반복적으로 제시되었다.

환경·농업위원회 검토보고서(공동 제출): 현재 스웨덴 북부에서는 현대 스웨덴 역사상 유례없는 산업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출처: 스웨덴의 Agenda 2030 이행(8번 문서)

이러한 표현에서 강조되는 것은 개별 기업의 수익성이나 시장 성과 자체

라기보다, 노스볼트를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의 대규모 산업 재편 과정이다. 여기서 노스볼트는 특정 기업의 성공 가능성보다, 스웨덴 경제의 공간적·산업적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산업 프로젝트로 의미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이후 노스볼트는 점차 대규모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대상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한다.

스웨덴민주당 공동 의안 발의문: 노스볼트 설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셀레프테오 지방정부는 200억 크로나 이상을 지출했다. 출처: 에너지정책의 장기적 방향(22번 문서)

여기서 노스볼트는 더 이상 단순한 녹색 산업혁신의 성공 사례라기보다, 막대한 공공 비용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국가 프로젝트로 표상된다. 특히 초기 시기에서 강조되던 “혁신(innovation)”과 “경쟁력(konkurrenskraft)” 중심의 언어는 점차 “비용(kostnader)”, “위험(risk)”, “공공 재정(offentliga finanser)” 등의 표현으로 대체되기 시작한다. 정치화 시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뚜렷해진다.

Tobias Andersson(스웨덴민주당, 국회의원): 노스볼트를 크고 값비싼 실패 외의 다른 것으로 묘사하기는 어렵다. ...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극적인 자본 파괴, 실망한 — 어쩌면 기만당했다고 느끼는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가 ‘스웨덴 이미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한 중대한 타격이다. 출처: 공급안보·경쟁력·기후전환을 위한 에너지 연구 및 혁신(28번 문서)

Michael Rubbestad(스웨덴민주당, 국회의원): 우리는 녹색전환과 새로운 산업에 대한 열광이 상식을 앞서는 사례를 여러 차례 보아 왔다. 노스볼트는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며, 안타깝게도 스테그라(Stegra)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수천 개의 일자리와 막대한 정부 지원은 미래의 기적처럼 제시되었지만, 시간이 지난 뒤 우리가 마주한 것은 지연, 비용 증가, 그리고 불확실한 경제적 기반이었다. 출처: 2025/26: 23

회의록(35번 문서).

여기서 노스볼트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실패라기보다, 녹색 산업전환과 국가 산업정책 전반의 위험과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상으로 구성된다. 특히 “Sverigebilden(스웨덴 이미지)”이라는 표현은 노스볼트가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 스웨덴 산업모델과 국가 미래를 상징하는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드러낸다.

종합하면, 노스볼트는 단순한 친환경 기업이라기보다, 녹색 산업전환을 통해 새로운 산업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를 상징하는 프로젝트로 표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4.4 행위자 구성: 산업전환의 수행과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노스볼트를 둘러싼 스웨덴 의회 담론에서는 국가, 기업, 지방정부, 노동자 등이 녹색 산업전환을 수행하는 서로 다른 행위자로 구성된다. 초기 담론에서는 공공부문과 기업이 산업전환을 함께 추진하는 협력적 주체로 제시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특히 배터리·철강·수소 산업과 같은 녹색 산업전환 프로젝트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Isak From(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현재 스웨덴 북부에서는 일자리와 번영을 창출하는 대규모 재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러한 발전에는 무엇보다도 화석연료 없는 철강 생산, 배터리 제조, 녹색 수소 생산이 포함된다. 적절한 조건이 마련된다면 스웨덴 북부는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녹색 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된다. 출처: 북부 스웨덴의 재산업화(18번 문서)

특히 주택·인프라·노동력 수용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Fredrik Olovsson(사회민주당, 국회의원): 노스볼트는 얼마 전 사회와 정부에 핵심적인 주택 건설 문제를 강하게 호소하였다., 출처: 새로운 국가 녹색 보증(19번 문서)

그러나 후기 담론으로 갈수록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는 점차 산업전환의 수혜자보다 비용 부담 주체로 재구성되기 시작한다.

Fredrik Olovsson(사회민주당, 국회의원): 셀레프테오 지방정부는 산업 투자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상하수도, 주택 및 기타 인프라에 수십억 크로나를 투자하였다., 출처: 녹색 전환 지원(20번 문서)

노동자의 위치 역시 점차 변화한다. 초기 담론에서 노동자는 미래 산업 성장의 핵심 인력으로 등장했지만, 위기 이후에는 산업 실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피해 주체로 재구성된다.

Fredrik Olovsson(사회민주당, 국회의원): 이것은 성장과 경제 발전을 이루고, 복지 서비스를 위한 세수를 창출하며, 전환에 기여하는 고생산적이고 경쟁력 있으며 친환경적인 일자리에 관한 것이다., 출처: 북부 스웨덴의 재산업화(18번 문서)

여기서 노동은 단순한 고용 창출 효과가 아니라, 산업 성장·국가 경쟁력·복지 유지·기후전환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자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고생산적(högproduktiva)”, “경쟁력 있는(konkurrenskraftiga)”, “친환경적인(gröna)”이라는 표현이 결합되는 방식은 노동자가 녹색 산업전환의 중심 수행 주체로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후기 담론으로 갈수록 노동자는 점차 산업위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피해 주체로 재구성되기 시작한다.

Tobias Andersson(스웨덴민주당, 국회의원):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극적인 자본 파괴와 실망한, 어쩌면 기만당했다고 느끼는 노동자들이다., 출처: 공급안보·경쟁력·기후전환을 위한 에너지 연구 및 혁신(28번 문서)

이 표현에서 노동자는 더 이상 미래 산업 성장의 핵심 인력이 아니라, 실패한 산업전환 프로젝트의 사회적 피해자로 구성된다. 특히 “실망한(besvikna)”과 “기만당한(lurade)”이라는 표현은 녹색 산업전환에 대한 기대와 낙관이 이후 배신감과 상실감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노스볼트 위기 이후에도 책임이 기업 내부의 경영 실패나 창업자 개인에게 집중되기보다, 국가 산업정책과 공공투자 전반으로 확장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Tobias Andersson(스웨덴민주당,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기후목표, 비현실적인 정치적 약속, 그리고 막대한 세금을 통해 발전을 강제로 추진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결과 우리는 노스볼트와 같은 값비싼 실패에 도달할 위험이 크다. 출처: 공급안보·경쟁력·기후전환을 위한 에너지 연구 및 혁신(28번 문서)

Rickard Nordin(중앙당, 국회의원): 우리는 현재 발표된 대기업들과 그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Preem, Northvolt, SCA, Volvo, Scania와 같은 기업들은 중요한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전체적인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출처: 2019/20:52 회의록(3번 문서).

실제로 수집된 말뭉치에서 경영진의 무능이나 모럴 해저드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사실상 전무하다. 거의 유일한 표현은 “탐욕스러운 보조금 기업가들(giriga bidragsentreprenörer)” 정도인데, 이 역시 기업이 개인을 직접 비판하기보다, 비효율적 기후정책이 자유시장을 왜곡하고 그 과정에서 투입된 세금이 특정 산업 프로젝트와 기업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맥락 속에서 사용되고 있다. 더불어 위 예문이 나타나는 문서 내 “계획경제적 메가 프로젝트(planekonomiska megaprojekt)”라는 표현도 함께 나타나는 데 이는 파산 이후에도 노스볼트가 여전히 국가 산업전환 전략의 일부로 이해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4.5 정당화 전략: 왜 국가는 녹색 산업전환 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하는가?

초기 담론에서는 녹색 산업전환이 스웨덴 산업의 미래 성장 전략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방식으로 정당화된다.

Anders Ygeman(사회민주당, 국회의원): 우리는 녹색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다. 출처: 2023/24:98 회의록(21번 문서)

이 표현에서 녹색 산업전환은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스웨덴이 미래 산업질서를 선도할 수 있다는 국가적 비전과 연결된다. 특히 “이끈다(leder)”라는 표현은 녹색 산업전환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흐름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산업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전략으로 구성하는 효과를 가진다. 여기서 녹색 산업전환은 환경보호를 위한 비용이나 희생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오히려 친환경 산업전환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스웨덴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논리가 은연중에 강조된다. 또한 녹색 산업전환은 북부 지역 재산업화 및 지역경제 회복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Fredrik Olovsson(사회민주당, 국회의원): 오늘날 노르보텐은 스웨덴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베스테르보텐은 두 번째로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산업 발전의 상당 부분은 북부 스웨덴 전체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데 기여했다. 출처: 칼락 광산 결정(15번 문서)

그러나 후기 담론으로 갈수록 이러한 정당화 구조는 점차 균열되기 시작한다. 특히 노스볼트 위기 이후에는 국가의 녹색 산업 개입 자체가 과도한 시장 개입과 비현실적 산업정책의 결과라는 비판 역시 등장하기 시작한다.

Josef Fransson(스웨덴민주당, 국회의원): 셀레프테오시는 산업 투자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상하수도, 주택, 기타 인프라에 수십억 크로나

를 투자했다, 출처: 스웨덴의 *Agenda 2030 이행*(29번 문서)

Mats Green(온건당, 국회의원): 노스볼트의 파산은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에 있었던 환상적인 프로젝트에 세금을 투입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출처: 2024/25:91 회의록(31번 문서)

전반적으로 후기 담론에서 노스볼트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친환경 대 반친환경의 대립이라기보다, 국가가 산업전환 과정에서 어디까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인다.

4.6 위험 및 비용 구성: 녹색 산업전환의 부담은 어떻게 가시화되는가?

노스볼트를 둘러싼 스웨덴 의회 담론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초기에는 녹색 산업전환의 위험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주변화되거나 미래 성장 가능성 속에 흡수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특히 초기 담론에서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담이나 인프라 압박보다, 성장·투자·고용·산업경쟁력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중심으로 강조되었다.

Anna-Caren Säterberg(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현재 북부 스웨덴에서는 우리가 이전에 본 적 없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수천 개의 일자리, 거대한 수출 가능성, 그리고 강화된 경쟁력에 관한 것이다, 출처: 예산항목 24 산업 및 기업(9번 문서)

그러나 후기 담론으로 갈수록 녹색 산업전환에 수반되는 재정적·사회적·물리적 부담이 점차 독립적인 정치적 쟁점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한다.

Isak From(사회민주당, 국회의원): 노스볼트는 몇 주 전 사회와 정부에 핵심적인 주택 건설 문제에 대해 강하게 호소했다, 출처: 북부 스웨덴의 재산업화(18번 문서)

여기서 녹색 산업전환은 더 이상 추상적 미래 비전이 아니라, 주택 건설 문제라는 현실적 부담으로 구성된다. 특히 “강하게 호소했다(vädjade stort)”라는 표현은 기존 인프라 체계가 녹색 산업전환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낸다. 또한 후기 담론에서는 (이미 위에서 몇몇 예문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 전력 체계 부담, 공급망·광물 문제 등도 가시화되기 시작한다. 위험 구성의 변화는 노동과 지역사회에 대한 담론에서도 나타난다. 초기에는 산업전환이 미래 일자리와 성장의 원천으로 제시되었다면, 후기 담론에서는 산업 실패의 사회적 충격과 불안정성이 보다 강조되기 시작한다.

4.7 배제 및 정치화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기 문서에서는 녹색 산업전환이 자명한 국가적 목표처럼 제시되며, 산업정책 실패 가능성이나 공공재정 부담 문제는 상대적으로 배제된다. 그러나 노스볼트 위기 이후 이러한 구조는 무너지고 정치화되기 시작한다. 정치화 과정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초기에는 국가 개입의 범위와 산업정책의 효율성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던 논쟁이 점차 녹색 전환 자체의 정당성과 미래 산업 비전을 둘러싼 갈등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민주당(Sverigedemokraterna)는 비교적 초기부터 북부 산업전환을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와 국가 주도 산업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하였다.

Tobias Andersson(스웨덴민주당, 국회의원): 공공부문은 투자가 실제로 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수십억 크로나를 프로젝트에 쏟아부을 수는 없다. ... 국가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녹색전환을 인위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과도한 믿음이 존재한다. ... 실제 필요보다 정치적 위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출처: 북부 스웨덴의 재산업화(18번 문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정부·여당 측이 단순히 재정적 타당

성이나 정책 효율성의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들은 스웨덴민주당의 비판을 녹색 산업전환 자체에 대한 반대로 재구성한다.

Anders Ygeman(사회민주당, 국회의원): 그곳에서는 진보적인 기후정책 덕분에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으며, 스웨덴민주당은 이에 반대해 왔다. 우리는 철도 투자 등을 통해 LKAB, 그린 스틸, 노스볼트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민주당은 새로운 철도와 도로 투자 축소를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 나는 스웨덴민주당이 북부 스웨덴의 녹색 산업전환에 필요한 투자에 반복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 이것은 단지 기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투자, 그리고 스웨덴의 경쟁력에 관한 문제이다. 출처: 북부 스웨덴의 재산업화(18번 문서)

이 논쟁에서 중요한 점은, 스웨덴민주당의 비판이 단순한 재정 건전성 또는 시장주의적 비판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치화 과정 속에서 갈등의 초점은 단순한 정부 개입의 범위를 넘어, 누가 미래 산업과 녹색전환의 편에서 있는가를 둘러싼 정치적·도덕적 구분으로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후기 담론에서 더욱 강화된다. 특히 노스볼트 파산 이후 일부 문서에서는 스웨덴민주당이 “화석연료에 집착하는 세력(fossilkramande)”으로 직접 호명되며, 녹색전환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정치세력으로 재구성되는 모습까지 나타난다.

수집된 말뭉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스웨덴 의회 내 정당들은 노스볼트와 녹색 산업전환 자체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이기보다, 국가 개입의 범위와 산업정책의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른 강조점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난다. 대부분의 정당은 배터리 산업과 녹색 산업전환 자체의 필요성은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차이를 보였다.

우선 사회민주당(Socialdemokraterna)과 환경당(Miljöpartiet), 좌파당(Vänsterpartiet)은 노스볼트를 미래 산업전환의 핵심 프로젝트로 적극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 정당은 녹색 산업전환을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일자

리 창출·지역 재산업화·산업경쟁력 강화·복지국가 유지와 연결되는 국가 발전 전략으로 의미화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사회민주당은 북부 지역 산업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환경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전환의 필요성을 보다 중심으로 강조하였다. 좌파당 역시 국가 주도의 산업전환과 공공 개입의 필요성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Lorentz Tovatt(환경당, 국회의원): Hybrit, LKAB, H2 Green Steel, 그리고 Northvolt는 녹색전환이 단지 필요한 과제가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웨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보여준다, 출처: 2020/21:88 회의록(11번 문서).

반면 온건당(Moderaterna), 자유당(Liberalerna), 중앙당(Centerpartiet), 기독교민주당(Kristdemokraterna) 등 중도·우파 정당들은 녹색 산업전환 자체를 강하게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보다 실용주의적·시장친화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 정당은 노스볼트를 전략산업·미래 기술산업·국가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산업혁신과 기업 경쟁력 측면을 강조하였다. 다만 공공지원의 규모와 방식, 전력 공급 문제, 인프라 부담 등에 대해서는 아래 인용문의 경우와 같이 상대적으로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Elisabeth Björnsdotter Rahm(온건당, 국회의원): 산업 전환과 현재 북부 스웨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투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력 생산이 필요하다, 출처: 노르보텐 지역의 전력 공급(Elleveranser i Norrbotten)(12번 문서).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것은 스웨덴민주당이었다. 스웨덴민주당은 특히 후기 담론으로 갈수록 노스볼트를 과도한 국가 개입과 비효율적 산업정책의 사례로 비판하는 경향을 강화하였다. 이들은 대규모 공공투자와 국가 주도 산업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스웨덴민주당 역시 환경보호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보다, 국가가 특정 산업 프로젝트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방식에 보다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또한 정치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차이는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초기에는 주로 산업정책의 효율성과 국가 개입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중심이었다면, 후기 담론으로 갈수록 스웨덴민주당의 비판은 단순한 재정 보수주의나 시장주의적 비판을 넘어, 점차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녹색전환 자체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한다. 반대로 정부·여당 측은 녹색 산업전환을 곧 미래 산업·일자리·국가 경쟁력과 동일시하며, 이에 대한 비판을 미래 산업 자체에 대한 반대로 의미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노스볼트를 둘러싼 스웨덴 의회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스웨덴 사회에서 ESG 및 녹색 산업전환 담론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노스볼트 담론은 단순한 환경보호 담론이나 친환경 기술 담론이라기보다, 산업정책·국가경쟁력·지역발전·에너지 전환이 결합된 정치경제적 프로젝트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기 담론에서 노스볼트는 단순한 배터리 기업이 아니라, 유럽 산업 자립과 스웨덴의 미래 산업경쟁력을 상징하는 존재로 제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녹색 산업전환은 환경보호를 위한 비용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과 산업혁신, 그리고 국가 재도약의 기회로 의미화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담론이 스웨덴 북부 지역을 국가 미래의 전략적 공간으로 재구성했다는 점이다. 초기 담론에서 북부 스웨덴은 단순한 자원 공급지나 주변부 지역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광물·배터리·철강 산업이 결합되는 미래 산업전환의 핵심 공간으로 묘사되었다. 실제 의회 담론에서는 북부 지역 산업화를 통해 “framtidstro(미래에 대한 희망)”가 형성되고 있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는 녹색 산업전환이 단순한 기후정책을

넘어 지역 재산업화와 국가 재구성 프로젝트로 정당화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스웨덴의 녹색 산업전환은 흔히 상상되는 탈산업화(post-industrialization) 프로젝트라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산업국가를 재구성하려는 재산업화(re-industrialization) 담론에 가까운 성격을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스웨덴 사회의 ESG 담론이 단순한 윤리적 가치 담론에 머무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스웨덴 의회 담론 속 ESG와 녹색 산업전환은 환경보호뿐 아니라 산업성장, 국가경쟁력, 복지국가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동시에 정당화하는 통합적 서사로 구성되고 있었다. 특히 환경정책과 산업정책, 국가 전략이 상호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결합될 수 있다는 믿음은 스웨덴 사회의 생태적 근대화(ecological modernization) 담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즉 녹색 산업전환은 단순한 규제 정책이 아니라, 미래 산업질서를 선도하고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로 이해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초기 담론에서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주변화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전력 공급 문제, 주택 부족, 지역 인프라 압박, 지방정부 재정 부담과 같은 문제들은 일부 언급되기는 했으나, 대체로 성장·혁신·고용·국가경쟁력이라는 미래지향적 서사 속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즉 초기 담론에서 위험은 산업전환 자체의 비용이라기보다, 오히려 “전환의 기회를 놓칠 위험”의 형태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초기 노스볼트 담론은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산업경쟁력, 지역발전이 상호 충돌하지 않고 동시에 실현 가능하다는 강한 낙관주의 위에서 작동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후기 담론으로 갈수록 이러한 안정적 서사에는 점차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특히 노스볼트 위기 이후에는 주택 부족, 전력 공급 문제, 건설시장 침체, 지방정부 재정 부담, 노동자 불안정성, 산업 실패 위험 등이 보다 독립적인 정치적 쟁점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초기 담론에서 미래 성장 가능성 속에 흡수되던 비용과 위험이 더 이상 주변화되지 못하고, 산업전환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현실적 문제로 재구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후기 담론에서는 “dyrt misslyckande(값비싼 실패)”, “massivt med

skattemedel(막대한 세금 투입)”, “lurade arbetare(기만당했다고 느끼는 노동자들)”와 같은 표현이 등장하면서, 녹색 산업전환이 더 이상 갈등 없는 미래 프로젝트로 유지되기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환경보호·산업성장·국가경쟁력·복지국가 유지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기존 담론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긴장과 모순이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이 과정에서 스웨덴민주당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후기 담론에서 스웨덴민주당은 비현실적 기후목표와 과도한 국가개입, 공공재정 투입을 비판하면서 녹색 산업전환 자체의 정당성에 강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논리는 최근 미국 보수 진영에서 나타난 반(反)기후 정치 혹은 반ESG 포퓰리즘과 일정 부분 유사한 측면을 가진다. 미국식 반기후 정치는 기후정책과 ESG를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국가 산업을 약화시키는 엘리트 중심의 정치 프로젝트로 재구성하는 특징을 보인다(Mayer, 2022). 이 과정에서 환경규제는 제조업과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요소로 묘사되며, 탄소중립과 ESG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개입 혹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비판된다. 스웨덴민주당 역시 후기 담론에서 녹색 산업전환을 사회민주당의 정치적 독선, 즉 막대한 세금 투입과 비현실적 정책 목표, 그리고 산업 실패 위험과 연결시키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이와 유사한 담론 전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차이 역시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반기후 정치와 반ESG 담론이 공화당 주류 정치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기후정책 자체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수준으로 발전한 반면,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회의론이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스웨덴민주당 내부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사회민주당, 중앙당, 온건당을 포함한 주요 정당들은 산업전환 방식이나 국가 개입 수준에서는 차이를 보이더라도, 녹색 산업전환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합의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스웨덴의 녹색 산업전환 담론이 단순한 정책 수준을 넘어, 일정 수준 헤게모니적 안정성을 획득한 정치적 상식(common sense)의 형태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몇몇 자료, 특히 스웨덴 연기금 청문회 자료는 이러한 스웨덴형 녹색 산업전환 모델 내부에 존재하는 또 다른 긴장을 보여준다. 청문회에서 정

부 관계자들과 연기금 관계자들은 반복적으로 개별 투자 결정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정부는 직접적인 투자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지속가능성 목표와 녹색 산업 육성을 국가 전략으로 강하게 추진하고 있었으며, “정부 신호(signalers)”와 정책 방향성 역시 공개적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이는 노스볼트 사례를 둘러싸고 ‘형식적 독립성(formal independence)’과 ‘실질적 영향력(substantive influence)’ 사이의 긴장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즉 스웨덴 정부는 직접적인 투자 지시나 명시적 개입 없이도, 지속가능성 목표와 녹색 산업전환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함으로써 투자 판단이 이루어지는 환경 자체를 구조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스웨덴형 녹색 산업전환 모델은 단순한 직접 통제 방식이 아니라, 정책 신호(policy signals), 제도적 방향성,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장 행위자들의 판단 환경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노스볼트 사례가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 ESG와 녹색 산업전환이 국가·시장·연기금 사이 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동시에 본 연구는 이러한 안정성이 완전히 고정되거나 같듯이 제거된 상태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후기 담론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녹색 산업전환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표현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기존 녹색 산업전환 담론 내부에 새로운 정치적 균열 가능성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표현들은 녹색 산업전환을 더 이상 단순한 미래 성장 프로젝트가 아니라, 공공재정 부담과 사회적 위험, 국가개입의 실패 가능성과 연결시키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시 말해, 노스볼트 사례는 기존 스웨덴형 녹색 산업 합의 내부에서도 비용·위험·분배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균열이 미국식 반(反)기후 정치 혹은 반ESG 포퓰리즘으로 본격 확산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스웨덴 정치의 중심 담론은 여전히 녹색 산업전환과 산업경쟁력, 기술혁신의 결합을 핵심 국가 전략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스웨덴민주당의 회의론 역시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정치 공간 안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동시에 노스볼트

사례는 적어도 스웨덴 사회 내부에서도 녹색 산업전환의 비용과 위험, 자원 배분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의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향후 경제 침체, 에너지 가격 문제, 산업 실패 사례 등이 반복될 경우, 기존의 녹색 산업 합의 역시 보다 본격적인 정치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노스볼트 사례가 단순한 개별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 스웨덴 사회에서 ESG 및 녹색 산업전환 담론이 어떠한 방식으로 안정화되고, 또 어떠한 조건 속에서 균열과 정치화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스웨덴의 ESG 담론은 단순한 환경윤리 담론이 아니라, 산업성장·국가경쟁력·복지국가 유지·지역 재산업화를 동시에 정당화하는 헤게모니적 정치 프로젝트로 기능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스볼트 위기 이후 기존에 비가시화되던 비용·위험·분배 문제가 점차 독립적인 정치 쟁점으로 등장하면서, 스웨덴형 녹색 산업전환 모델 역시 완전히 안정된 구조라기보다 특정한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조건 위에서 유지되는 “조건부적 안정성(contingent stability)” 위에 존재하고 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노스볼트 사례는 단순한 기업 실패 사례라기보다, 환경보호·산업성장·국가경쟁력·복지국가 유지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스웨덴형 녹색 산업전환 모델 내부의 구조적 긴장과 정치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nshelm, J., & Hultman, M. (2014). A green fatwā? Climate change as a threat to the masculinity of industrial modernity. *NORMA: International Journal for Masculinity Studies*, 9(2), 84-96.
- Baker, S., & Eckerberg, K. (2008). Conclusion: Combining old and new governance in pursui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S. Baker & K. Eckerberg (Eds.), *In pursuit of sustainable development: New governance practices at the sub-national level in Europe* (pp. 219-234). Routledge.
- Buttel, F. H. (2000). Ecological modernization as social theory. *Geoforum*, 31(1), 57-65.
- Carroll, A. B. (1991). 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ward the moral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stakeholders. *Business Horizons*, 34(4), 39-48.
- De Leeuw, G., & Vogl, V. (2024). Scrutinising commodity hype in imaginaries of the Swedish green steel transi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E: Nature and Space*, 7(4), 1844-1867.
- Dryzek, J. S. (2013). The deliberative democrat's idea of justic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Theory*, 12(4), 329-346.
- Dyllick, T., & Muff, K. (2016). Clarifying the meaning of sustainable business: Introducing a typology from business-as-usual to true business sustainability. *Organization & Environment*, 29(2), 156-174.
- European Commission. (2013). *Impact assessment accompanying the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disclosure of non-financial and diversity information by certain large companies and groups* (SWD(2013) 127 final).
- Fairclough, N. (2003). *Analysing discourse: Textual analysis for social research*. Routledge.
- Hajer, M. A. (1995). *The politics of environmental discourse: Ecological*

- modernization and the policy process*. Clarendon Press.
- Hall, P. A., & Soskice, D. (Eds.). (2001).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University Press.
- Harring, N., Jagers, S. C., & Matti, S. (2017). Public support for pro-environmental policy measures: Examining the impact of personal values and ideology. *Sustainability*, 9(5), 790.
- Jahn, D. (2016). The Nordic model of democracy. *West European Politics*, 39(1), 3-25.
- Koch, M., & Fritz, M. (2014). Building the eco-social state: Do welfare regimes matter? *Journal of Social Policy*, 43(4), 679-703.
- Kramer, M. R., & Porter, M. E. (2011).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89(1-2), 62-77.
- Lee, H., Lee, S. H., Lee, K. R., & Kim, J. H. (2023). ESG discourse analysis through BERTopic: Comparing news articles and academic papers. *Computers, Materials & Continua*, 75(3), 6023-6037.
- Lidskog, R., & Elander, I. (2012). Ecological modernization in practice? The case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Sweden.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 Planning*, 14(4), 411-427.
- Mayer, A. (2022). From woke capitalism to ESG backlash: The rise of anti-ESG 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Competition & Change*, 26(5-6), 653-674.
- Mazzucato, M. (2013). Financing innovation: Creative destruction vs. destructive creation.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22(4), 851-867.
- Mazzucato, M. (2018).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i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27(5), 803-815.
- Meadowcroft, J. (2005). From welfare state to ecostate. In J. Barry & R. Eckersley (Eds.), *The state and the global ecological crisis* (pp. 3-23). MIT Press.
- Mol, A. P. J., & Sonnenfeld, D. A. (2000). Ecological modernisation around the world: An introduction. *Environmental Politics*, 9(1), 3-16.

- Scherer, A. G., & Palazzo, G. (2011). The new political role of business in a globalized world: A review of a new perspective on CSR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firm, governance, and democracy.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48(4), 899-931.
- Sipinen, S., Silvast, A., & Kojo, M. (2025). Electrifying stories: The economy, the environment and global change in news media discourse on the developing Finnish battery industry.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129, 104352.
- Sonnjsjö, H. (2024). What we talk about when we talk about electricity: A thematic analysis of recent political debates on Swedish electricity supply. *Energy Policy*, 187, 114053.
- Svensson, M., & Schmidt, M. (2023). Unveiling contradictions: The green energy transition and Sámi Indigenous rights in the Per Geijer expansion, Kiruna, Sweden. *The Extractive Industries and Society*, 16, 101385.
- Swyngedouw, E. (2010). Apocalypse forever? *Theory, Culture & Society*, 27(2-3), 213-232.
- Vidal, F. (2024). The quest for a sustainable industry: Mining, path dependency and post-carbon regime in the European Arctic. *Mineral Economics*, 1-14.
- York, R., & Rosa, E. A. (2003). Key challenges to ecological modernization theory. *Organization & Environment*, 16(3), 273-288.

《부록》

부록 1. 분석 대상 스웨덴 의회 문서 목록

	연도	문서제목(한글 / 스웨덴어)	문서 유형	내용요약
1	2018	2017/18:76 회의록(Protokoll 2017/18:76)	prot	노스볼트가 광물·배터리 산업 전환 및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입지 사례로 등장
2	2018	에너지정책의 방향(Energipolitikens inriktning)	bet	노스볼트 Labs 지원과 에너지정책 및 지속가능한 배터리 산업 육성 연결
3	2019	예산항목 20 일반 환경 및 자연보호 (Utgiftsområde 20 Allmän miljö- och naturvård)	bet	녹색 투자와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스볼트를 전략적 기업 사례로 제시
4	2020	2019/20:63 회의록(Protokoll 2019/20:63)	prot	노스볼트를 유럽 전략산업·혁신·지속가능한 배터리 생산 사례로 제시
5	2020	기후를 위한 통합정책 - 기후정책 행동계획 (En samlad politik för klimatet - klimatpolitisk handlingsplan)	bet	기후정책과 지속가능한 배터리 생산 및 산업 전환 연결
6	2020	전력 시스템의 에너지 및 출력 부족 (Energi- och effektbrist i elsystemet)	mot	노스볼트 등 녹색 산업 프로젝트의 대규모 전력 수요 문제 제기
7	2020	스코네 및 기타 지역의 전력 용량 부족 (Kapacitetsbrist i Skåne och övriga Sverige)	ip	전력 공급·산업입지·녹색 투자 확대와 노스볼트 연결
8	2020	스웨덴의 Agenda 2030 이행 (Sveriges genomförande av Agenda 2030)	bet	녹색 일자리·경제성장·Agenda 2030과 노스볼트 연결

	연도	문서제목(한글 / 스웨덴어)	문서 유형	내용요약
9	2020	예산항목 24 산업 및 기업 (Utgiftsområde 24 Näringsliv)	bet	노스볼트를 산업 성장·재활용·일자리 창출 담론과 연결
10	2021	강력한 광업 및 광물 산업을 위한 스웨덴의 조건 (Sveriges förutsättningar för en stark gruv- och mineralnäring)	ip	광물·원자재 확보와 녹색 산업 전환 연결
11	2021	기후정책(Klimatpolitik)	bet	노스볼트·HYBRIT 등을 정치 주도 녹색 산업 전환 사례로 제시
12	2021	노르보텐 지역의 전력 공급 (Elleveranser i Norrbotten)	ip	녹색 산업 프로젝트 확대에 따른 전력 공급 부족 문제 제기
13	2021	광물정책(Mineralpolitik)	bet	배터리 생산·광물·기후전환·지역 일자리 담론 연결
14	2021	노르보텐 및 북부 베스테르보텐 전력망 확충 (Elnätsutbyggnaden i Norrbotten och norra Västerbotten)	mot	노스볼트 Ett 공장과 전력망 확충 필요성 강조
15	2021	칼락 광산 결정(Beslut om Kallak)	ip	광물 개발·토지 이용·지속가능한 산업 전환 간 긴장 논의
16	2022	스웨덴 연기금 지속가능성 활동에 대한 국가감사원 보고서 (Riksrevisionens rapport om AP-fondernas hållbarhetsarbete)	bet	스웨덴 연기금의 지속가능투자와 노스볼트 투자 딜레마 논의
17	2022	석탄·석유·천연가스 채굴 금지 및 셰일 추출 규제 강화 (Förbud mot utvinning av kol, olja och naturgas och	bet	녹색 전환에 필요한 광물 수요와 환경 규제 간 긴장 논의

	연도	문서제목(한글 / 스웨덴어)	문서 유형	내용요약
		skärpta regler för utvinning i alunskeer)		
18	2023	북부 스웨덴의 재산업화 (Nyindustrialiseringen i norra Sverige)	ip	북부 녹색 산업화 과정의 주거·지역 인프라 문제 논의
19	2023	새로운 국가 녹색 보증 (Nya statliga gröna garantier)	ip	국가 보증·주택 문제·노스볼트 확장 과정 논의
20	2024	녹색 전환 지원(Stöd för grön omställning)	ip	녹색 전환 지원 과정에서 정부 역할과 지역 재정 부담 논의
21	2024	2023/24:98 회의록(Protokoll 2023/24:98)	prot	노스볼트 투자와 녹색 산업 정책에 대한 정치적 공격·방어 프레이밍
22	2024	에너지정책의 장기적 방향 (Energipolitikens långsiktiga inriktning)	bet	노스볼트 유치를 위한 지방정부 비용과 에너지 정책 논의
23	2024	경제정책 지침 (Riktlinjer för den ekonomiska politiken)	bet	노스볼트 투자 규모와 공공 보조금 논쟁
24	2024	셀레프테오의 해고 사태(Varslen i Skellefteå)	ip	해고·지역경제 충격·정부 대응 논의
25	2024	전기트럭(Ellastbilar)	ip	전기트럭·배터리 공급망· 노스볼트 생산 확대 논의
26	2024	예산항목 24 산업 및 기업 (Utgiftsområde 24 Näringsliv)	bet	위기 이후 녹색 전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담론 등장
27	2025	노동시장정책 및 실업보험 (Arbetsmarknadspolitik och arbetslöshetsförsäkringen)	bet	노스볼트 파산과 노동시장·연기금 손실·사회적 비용 논의
28	2025	공급안보·경쟁력·기후전환을	bet	노스볼트 실패를 대규모 녹색

	연도	문서제목(한글 / 스웨덴어)	문서 유형	내용요약
		위한 에너지 연구 및 혁신 (Forskning och innovation på energiområdet för försörjningstrygghet, konkurrenskraft och klimatomställning)		산업 실패 사례로 프레이밍
29	2025	스웨덴의 Agenda 2030 이행 (Sveriges genomförande av Agenda 2030)	bet	녹색 산업 실패와 연기금 손실 문제화
30	2025	2024/25:83 회의록(Protokoll 2024/25:83)	prot	노스볼트 파산 이후 고용 지원과 정부 대응 질의
31	2025	2024/25:91 회의록(Protokoll 2024/25:91)	prot	장관의 노스볼트 파산 대응과 정부 역할 설명
32	2025	산업도약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감사원 보고서 (Riksrevisionens rapport om Industriklivet)	bet	산업도약 프로젝트 · 스웨덴 연기금 투자 · 정부 책임 조사 요구
33	2025	신규 원자력 투자에 대한 재정 및 위험 분담 (Finansiering och riskdelning vid investeringar i ny kärnkraft)	bet	녹색 전환 불확실성과 노스볼트 파산 정치화
34	2025	감사위원회 검토보고서 (Granskningsbetänkande)	bet	스웨덴 연기금 노스볼트 투자와 정부 개입 조사
35	2025	전략적 넷제로 프로젝트 관련 일부 사안의 비밀유지 (Sekretess i vissa ärenden om strategiska nettonollprojekt)	bet	공공지원 · 그린워싱 · 정치적 과잉낙관 비판
36	2025	2024년까지 스웨덴 연기금 운영 보고 (Redovisning av AP-fondernas)	bet	노스볼트 Chapter 11 이후 스웨덴 연기금 투자손실 논의

	연도	문서제목(한글 / 스웨덴어)	문서 유형	내용요약
		verksamhet t.o.m. 2024)		
37	2025	예산항목 21 에너지(Utgiftsområde 21 Energi)	bet	노스볼트 파산을 에너지 정책 및 산업 성과 평가와 연결
38	2026	국가의 Agenda 2030 추진에 대한 국가감사원 보고서 (Riksrevisionens rapport om statens arbete med Agenda 2030)	bet	녹색 산업 실패 · 연기금 손실 · 정부 책임 문제화
39	2026	크리스틴 마그누손 베르나르드 외 KU 청문회 (KU-utfrågning med Kristin Magnusson Bernard...)	sam-ou	스웨덴 연기금의 노스볼트 투자 판단과 책임 문제 청문
40	2026	울프 홀름 KU 청문회(KU-utfrågning med Ulf Holm...)	sam-ou	정부-연기금 관계와 노스볼트 투자 개입 여부 청문
41	2026	오사 린드하겐 KU 청문회 (KU-utfrågning med tidigare finansmarknadsminister Åsa Lindhagen...)	sam-ou	전 금융시장 장관의 투자 및 관리 책임 청문
42	2026	막달레나 안데르손 KU 청문회 (KU-utfrågning med tidigare finansminister Magdalena Andersson...)	sam-ou	전 재무장관의 정부 책임 및 투자 개입 청문
43	2026	페르 볼룬드 KU 청문회 (KU-utfrågning med tidigare finansmarknadsminister Per Bolund...)	sam-ou	스웨덴 연기금 관리와 정치적 책임 문제 청문

참고) bet는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betänkande), ip는 서면질의 및 질의응답(interpellation), mot는 의안 발의문(motion), prot는 본회의 회의록(protokoll), sam-ou는 청문회 및 협의 기록(samråd/utfrågning)을 의미함.

<Abstract>

How Is Corporate ESG Responsibility Politically Constructed?:

An Analysis of Swedish Parliamentary Discourse Surrounding the Bankruptcy of Northvolt*

Lee, Sung-Jun** · Lee, Jaejin***

This study examines how ESG and green industrial transition discourses are politically constructed and transformed through an analysis of Swedish parliamentary discourse surrounding the battery company Northvolt. Drawing on parliamentary documents from the Swedish Riksdag,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a corpus related to Northvolt using Fairclough'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framework, focusing on core representations, actor construction, legitimization strategies, the construction of risks and costs, and processes of politicization. The findings show that, in the early stages, Northvolt was represented as a strategic project capable of simultaneously achieving green industrial transition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whil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industrial growth were framed as mutually compatible goals. However, over time, issues such as electricity supply, housing shortages, public financial burdens, and investment risks became increasingly visible, intensifying tensions within the existing discourse. In particular, following Northvolt's bankruptcy, political conflicts surrounding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Inha University.

** First Author, Korean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Accreditation, E-mail: sungjun_lee@hot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Industrial Business Administration, Inha University, E-mail: jersey27@naver.com

government intervention and industrial policy failure deepened, leading to the politicization of ESG and green industrial transition discourses themselves. Nevertheless, despite these tensions and ruptures, the legitimacy of green industrial transition did not completely collapse. This study interprets this phenomenon a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 of “contingent stability” within the Swedish ESG discourse.

Key Words: ESG, Northvolt, green industrial transition, ecological modernization, 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politicization, contingent stability

성명: 이성준
소속: 한국경영교육인증원
E-mail: sungjun_lee@hotmail.com

성명: 이재진
소속: 인하대학교
E-mail: jersey27@naver.com

논문 접수일: 2026.5.27.

논문심사 완료일: 2026.6.30.

수정원고 접수일: 2026.6.30.

게재 확정일: 2026.6.30.